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 57%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벌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의 권한을 경찰에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CBS 의뢰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찬성이 반대보다 26.4%p 높았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 규모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해 4월4일과 올 3월15일 동일한 주제로 조사했을 때에는 각각 찬성 57.9%·반대 26.2%, 찬성 52.0%·반대 28.1%로 파악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여론은 정의당 지지층(찬성 88.1%·반대 8.7%)과 더불어민주당(찬성 81.6%·반대 9.7%), 진보층(찬성 77.2%·반대 12.3%), 광주·전라(찬성 76.3%·반대 22.5%) 등에서 높았다. 반면 반대 여론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22.0%·반대 62.1%)과 보수층(찬성 36.1%·반대 55.3%)에서 두드러졌다.

지지정당과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56.0%·반대 31.2%)과 무당층(찬성 53.7%·반대 25.4%), 중도층(찬성 60.7%·반대 32.2%) 등 찬성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찬성 64.7%, 반대 25.8%, 40대가 찬성 63.9%, 반대 28.5%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20대(찬성 62.9%·반대 28.2%) ▲50대(찬성 57.7%·반대 32.1%) ▲60대 이상(찬성 43.6%·반대 36.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60.3%·반대 36.4%), 경기·인천(찬성 58.9%·반대 26.5%), 대전·세종·충청(찬성 57.7% vs 반대 39.7%), 서울(찬성 56.6%·반대 29.2%) 등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구·경북의 경우 찬성 33.4%, 반대 37.8%로 4%p 차이로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59명 중 5044명이 응답해 5.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반 26.4%p 차이 정의·민주당 지지층·진보층 대다수 찬성 바른미래·무당층·중도층도 찬성 절반 넘어

(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뉴스시



어버이날 앞둔 꽃시장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 꽃시장에서 시민들이 부모님에게 선물할 카네이션을 고르고 있다.

‘성범죄 신고 보복’ 의붓딸 살해범 오늘 검찰 송치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는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아내 유모(39)씨와 공모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의붓딸 A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씨와 지난달 26일 오후 목포지역 마트·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후 5시 김씨의 부탄을 받은 유씨는 목포퍼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딸 A양을 불러냈다.

이후 무안 한 농로로 이동했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양과 다투고 차량 뒷좌석에서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2시간 가량 유기장소를 찾아다니다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숨긴 A양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가 A양의 성범죄 신고를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전부 자택 앞으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으면서 말리지 않은 정황, 유기 장소를 방문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유기를 공모·방조한 것으로 보고 공모 배경·동기, 가담 정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의 위력 또는 보복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는 유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보복당할까 겁났다. 죄송하다"며 소극적 범행 가담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보장 수사를 마치는 대로 유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A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음란물을 보낸 혐의(강간미수·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받는 김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전남 중돈장 가축전염병 ‘이상 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중돈장 주유 가축전염병 일제 검사결과, 모두 청정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 지역 중돈장 19개소와 돼지정액 등 처리업체(돼지인공수정센터) 1개소 등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번식돈과 사육단계별 돼지 1300여 마리에 대해 구제역과 돼지열병 등 질병 감염 여부 일제검사를 했다.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브루셀라병 등 5종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구제역 감염항체(NSP)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항체(SP)는 양성률 88%로 기준치인 60%를 초과해 양호했다. 돼지열병은 모두 항원 음성이고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은 96%로 기준치인 80%보다 높았다.

美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 A형간염 번져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와 투손 일대에서 A형 간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 보건관리들이 말하고 있다.

급성 간염인 A형 간염이 발생한 것은 지난 해 11월 부터이며, 이후 백신 접종 등 방역사업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총 212건에 달할 정도로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애리조나 리퍼블릭 지가 보도했다.

이 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고배를 잡는데에만 수 개월이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간염이다. 지난 해부터 여러 주에서 발생한 A형 간염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노숙자이거나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으며, 불법 미야의 사용자들도 환자가 많았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노숙자가 A형 간염에 잘 걸리는 것은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화장실 사용후 손을 씻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또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를 통해서도 전염된다.

애리조나주에서 올해에만 212명이 발생한 것은 연평균 통계로는 10년간에 최대를 기록했다. 주 보건관리들은 이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아직 이들 가운데 사망자는 없지만, 감염환자 중 다수가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중증이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간이 붓고 황달 증세를 보이며 피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이 뒤따른다. 감염후 2주일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면 1주일 이상 계속된다. 진단은 피검사가 가장 확실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피닉스시에서는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환자의 90%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마리코파 카운티 보건소의 레베카 서넨사인 박사는 말했다. 이곳에서는 최근 출몰한 사람들, 노숙자, 약물 오남용 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백신은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맞아야 한다.

A형 간염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한다. 감염환자와 성교로도 전염되며 다른 사람과 타월, 칫솔, 식기, 음식, 음료, 담배, 약품들을 함께 쓰는 것도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보건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공장폭발 화재로 4명 시신 발견

미국 일리노이주 위키건에 있는 특수 실리콘 공장에서 3일 밤 발생한 대형 폭발 화재로 공장이 전소된 후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발굴되었다고 5일(현지시간) 위키건 소방구조대가 발표했다. 위키건은 시카고 북부 80km지점에 있다.

스티브 렌치 소방대장은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세 번째 시신의 위치를 확인, 구조대가 이를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번째 시신의 위치도 확인 했다면서, 지금까지 공장 건물의 잔해 중에서 절반쯤을 수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AB특수실리콘(AB Specialty Silicones)사 소유의 이 공장에서는 폭발 당시에 9명의 종업원이 건물 안에 있었다. 한 명의 시신은 4일 새벽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두 번째 사망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4일 늦게 숨졌다. 5일 발견된 시신까지 현재 사망이 확정된 사람은 3명이고 4번째 시신은 아직 폐허 속에 남아 있어 꺼내지 못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아직 어떤 상태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명은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러시아 여객기 화재로 최소 41명 사망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5일 오후(현지시간) 비상착륙한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1명으로 늘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사고 조사원을 인용해, 모스크바 세레메타예보 공항에 비상착륙한 러시아 국영 에어로플로트 소속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41명이라고 전했다.

또 최소 6명 이상의 부상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73명 등 총 7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에어로플로트 소속 수호이 슈퍼젯 100 여객기는 이날 오후 5시 50분 모스크바 세레메타예보 공항을 출발해 북부 도시 무르만스크로 향했지만 이륙 후 30여분 후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세레메타예보 공항으로 회항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은 타스통신에 여객기가 비락을 맞으면서 불이 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